

Moody's社,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(Aaa → Aa1)

- 금일 주식시장 장마감후(뉴욕시간 16:40분경) Moody's社는 미국의 장기신용등급(Long-Term Issuer and Senior unsecured ratings)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*
- * 전망은 '부정적(negative)'에서 '안정적(stable)'으로 변경
- ※ S&P社는 2011.8.5일, Fitch社는 2023.8.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+로 강등한 바 있음
- 앞서 Moody's社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, 재정적자 지속 및 민주·공화 양당의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 난항 등으로 23.11.10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(stable)에서 부정적(negative)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
- Moody's社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근거로 ① 재정적자 증가, ② 정부의 부채부담 증가 전망 및 ③ 재정 건전성 개선 어려움 등을 제시
- (재정적자 증가) 10년 동안 연방지출*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, 감세 등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세금·지출을 유의미하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**는 2035년 GDP 대비 9% 수준(2024년 6.4%)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
- * 이자비용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2024년 총지출의 73%에서 2035년 78%로 증가 전망
- ** 2017년 감세법(Tax Cuts and Jobs Act) 연장시 향후 10년동안 기본재정(이자지급 제외) 적자가 약 4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(정부부채 증가) 10년 동안 미국 연방부채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액*도 상당폭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 부채는 2035년 GDP 대비 134% 수준(2024년 98%)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* 2021년 이후 국채금리 상승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저해됨에 따라 연방정부 세입(revenue) 대비 이자지급액의 비중은 21년: 9% → 24년: 18% → 35년: 30%로 확대될 전망
- (재정건전성 개선 어려움) 과거부터 역대 美 행정부와 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막대한 재정적자 증가와 이자비용 추세를 반전시킬 방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으며, 현재 진행중인 감세안을 감안시 의무지출과 재정적자를 다년간 실질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
- 다만 미국의 경제 규모, 높은 생산성 및 성장 잠재력,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미달러화의 역할,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연준의 통화정책 등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
- 한편 백악관은 금번 Moody's社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의회에서 진행중인 감세안* 결과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관심이 증대
- *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감세안(a tax and spending bill)이 메디케어 등에서 더 많은 지출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하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됨. 위원회는 주말 동안 예산안관련 논의를 지속한 후 5.18일(일) 저녁(뉴욕시간 기준)에 재표결할 예정
- ※ 금번 발표는 주식시장 마감 이후 채권시장 마감 직전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